하필이면 십자가, 마침 십자가

(스가랴 12:1~14)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필이면 십자가, 마침 십자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필이면 십자가, 마침 십자가'
하필이면과 마침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쓰임새의 말입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네."
"방금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마침 잘 왔어. 집에 갈 때 좀 가져가."
"점심 먹었어? 마침 잘 됐네. 나도 지금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가자고."

반면 하필이면은 마침과 비슷하게 쓰이면서도 부정적 어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마철 다 지나도록 비 한 방울 안 오더니 하필이면 소풍가는 날 장대비가 내리는구나."
"수많은 생선이 있는데 하필이면 독이 있을지도 모르는 복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운동장에서 공을 맞았는데 하필이면 눈에 맞았다"

이처럼 마침이란 때와 경우가 적절하게 잘 맞는 때에 사용하고, 하필이면은 아쉽거나 못 마땅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침과 하필이면이 우리의 신앙과는 어떠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반드시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로부터 '마침 십자가 생활화'의 단계로 변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으며, 십자가 생활화가 하필이면의 단계로부터 마침의 단계로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 된 때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재개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되는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화려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이에 대해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핵심요소가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예언을 통해 드러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더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임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성전의 생활화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존재의미는 생활화에 있습니다. 생활화하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전의 존재의미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본문에서는 성전 생활화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란 선민이자 성도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였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은총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듯이 우리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입된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인격적 과정이 즉 찔린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10절의 다음 부분을 보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라"는 나(me)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보자면 '그 찌른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이 됩니다. 우리가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간구할 때에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애통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 애통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10절 하반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 밖에 없는 자녀나 장손이 죽었을 때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똑같이 소중합니다만 옛날에는 외아들이나 외동딸 혹은 장손의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는 성령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애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독자나 장손의 죽음에 비견될만한 애통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자나 장손의 죽음은 곧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 가장 애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교리로만 배워오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셨는지를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한 시간쯤 하시고 눈을 들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당신의 막내아들인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과 똑같이 막내아들의 죽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애통함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생애 다시없을 정도로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막내아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겹치는데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아들이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흔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열심히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화를 통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애통함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애통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한창 때의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게 마음을 다 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 가있는 존재가 사라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독자에게 마음을 다 두고 있었던 부모라면 독자가 죽을 때에 마음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업에 마음을 다 두고 있었던 사장님이라면 사업이 망할 때에 마음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애통함입니다.

죽음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물도 못 마시겠고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야 될 이유도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증상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삶을 위한 힘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의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 주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죽거나 소멸된다면 삶에 대해 의욕도 힘도 어떤 바람도 생길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봄은 각자에게서 일어나야만 하는 인격적 사건입니다. 12~14절을 보면 "따로"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두지파로 또 각 개인으로 세분화되면서 모든 선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기를 각자가 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로 묶인 부부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지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성전을 생활화하고 아내도 남편 앞에서 성전을 생활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전의 존재의미를 완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필이면'과 '마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봅니다. 친한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마음 같아서는 다 긁어모아서 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저녁에 남편이 어음 돌아온 것을 막겠다며 집안의 돈을 싹 쓸어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 빌려줄 수가 없어서 애통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내가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

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나 스스로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십자가에 매달려있기에 내 힘과 의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배하고 있으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호통이라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가 생긴 순간에 하필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갑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불의에 대항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못마땅하고 아쉽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고백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오감에 마음이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살아있음으로써 꿈틀거리고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하필이면 내 마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다보면 마음은 '마침 십자가 생활화'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성전을 생활화하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의 생활화는 꼭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벧엘에 살아도 남쪽 광야 네게브 지방에 살아도 성전 생활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선민 각자가 마음에 성전을 갖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일 년에 세 번 절기를 정해서 성전을 찾아오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일 년에 세 번 정도는 성전을 방문함으로써 그 의미를 마음에 뚜렷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의 생활화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곧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전 생활화를 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면 어디에 살든지 선민의 믿음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가 '마침 십자가 생활화'로 변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과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는 동안 1~10절까지 언급되는 성전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을 생활화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의 삶을 누가 침범했다고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취한 상태와도 같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기운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몸이 있는 자리에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를 했더니 어느덧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먹는 것이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님은 이 은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필이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삶의 문제나 만나는 사람들도 하늘 기운이 취하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어하시고 벌주시는 것으로 취하게 하시고 나를 가깝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자체를 도맡아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윗처럼 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다보면 마음은 '마침 십자가 생활화'로 변하게 됩니다. 절박한 돈 문제가 있지만 마침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돈 문제와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 기운이 내려와서 주관해가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매달렸기 때문에 자녀 문제에 대해 죽기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마침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자녀에 대해 말 한 마디 할 수 없이 죽은 상태가 된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께 무슨 일이 생겨도 마침 십자가에 매달려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음을 인정함으로 인해 스스로 반응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가시니 이런 횡재가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고 마음이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에서 '마침 십자가 생활화'의 신앙의 단계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하필이던 마침이던 십자가 생활화는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필이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고 그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 이제는 마침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복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